

직장인의 지각된 부모양육태도와 자아분화가 핵심자기평가에 미치는 영향

박 경 환*

고려사이버대학교 경영학과

자신의 가치와 능력에 대한 자기평가로서 직무수행에서 내적 동기부여와 관련된 핵심자기평가는 직무성과 등 조직성과를 예측하는 개인 성격특성으로서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핵심자기평가의 성격형성에 대해서는 국내외에서 연구되어 오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성인 직장인을 대상으로 성인기 이전 원가족 부모양육태도와 자아발달의 척도인 자아분화가 핵심자기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실증연구를 위해 211명의 성인 직장인을 대상으로 Baron과 Kenny(1986)의 3단계 회귀분석, 공변량구조모형 비교, 그리고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성인기 이전 원가족 부모의 양육태도는 직접 핵심자기평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아분화를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핵심자기평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Baron과 Kenny의 3단계 회귀분석에서 지각된 부모양육태도는 자아분화($R^2=.324, p<.001$)와 핵심자기평가($R^2=.124, p<.001$)에 각각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세 번째 단계에서 핵심자기평가에 대한 부모양육태도의 증가된 설명력($\Delta R^2=.015, p<.05$)이 두 번째 단계($R^2=.124, p<.001$)보다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져 자아분화는 부모양육태도와 핵심자기평가 간에 부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변량구조모형 비교에서 부분매개모형과 완전매개모형을 비교한 결과 부분매개모형이 간명도 대비 부합도에서 가장 적합하였다. 추가 분석에서, 부모양육태도의 하위변수 중 핵심자기평가에 미치는 상대적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성취·비성취 양육태도만이 11%의 설명력을 보여주었다. 부모양육태도의 하위변수 중 자아분화에 미치는 상대적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애정·적대 양육태도가 32.9%의 설명력을 보여주었다. 자아분화의 하위변수 중 핵심자기평가에 미치는 상대적 기여도는 인지대정서가 17.9%의 설명력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자기가치와 역량을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직무수행에서 내재적으로 동기부여 되기 쉬운 핵심자기평가 성격특성의 발달이 성인기 이전 원가족 부모양육태도와 그로 인한 자아분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내적 동기부여와 핵심자기평가 성격발달에 관심을 갖고 있는 동기부여 이론가, 발달심리학자 및 직업능력개발 연구자에게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주요어 : 지각된 부모양육태도, 자아분화, 핵심자기평가

* 교신저자: 박경환, 고려사이버대학교 경영학과, (110-800) 서울시 종로구 계동 1-21

Tel: 02-6361-1912, E-mail: parkh@cyberkorea.ac.kr

Judge, Locke와 Durham(1997)는 직무만족을 예측하는 개인 성격특성을 찾는 과정에서 자아존중감, 일반화된 자아효능감, 내재적 통제위치, 신경증 이 4개는 유사성이 아주 높음에도 이에 대한 논의 없이 마치 다른 변수인 것처럼 사용 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 네 개의 변수는 조작적 정의가 유사하고 측정치 간의 상관계수가 높다는 점에서 그 개념들의 근원에는 단일 차원의 요인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찾으려 시도하였다. 실제 개인 성격특성으로서 자아존중감, 자아효능감, 내재적 통제위치, 신경증이 직무만족 등 조직성과를 예측하는 변수로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는데, 2001년 10월 조사에 의하면 약 50,000건의 연구에서 이 4개의 성격특성이 포함 되어 있으나 이들 성격특성 간의 유사성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았다(Judge, Erez, Bono, & Thoresen, 2003).

Judge, Erez, Bono와 Thoresen(2002)은 과거 75개의 연구결과를 분석한 결과 위 4개의 변수들은 평균 .60의 상관을 갖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이후 여러 실증 연구를 통하여 자아존중감, 일반화된 자아효능감, 내재적 통제위치, 신경증 이 네 개의 변수는 핵심자기평가(core self-evaluations)라는 하나의 상위 구성개념을 형성한다는 것을 밝혔다(Erez & Judge, 2001; Judge & Bono, 2001; Judge, Bono, & Locke, 2000; Judge, Erez, & Bono, 1998; Judge, Locke, Durham, & Kluger, 1998; Piccolo, Judge, Takahashi, Watanabe, & Locke, 2005).

핵심자기평가란 자기 자신의 가치, 역량, 효능감에 대한 가장 기본적으로 근본적인 '자기평가(self-appraisal)'를 의미한다(Judge & Bono, 2001). 핵심자기평가는 성격 특성에 대한 기술이 아닌 자기평가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결

으로 드러난 것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속성을 의미하며(Cattell, 1965), 또한 2차 성격특성 보다 범위가 넓고 깊은 기본 특성(cardinal traits)을 갖고 있다(Allport, 1961). 예를 들어, 특정 외부 대상에 대한 좋고 싫음이 아니라 '나는 약하다' 또는 '나는 경쟁력이 있다'라는 식으로 보다 근본적인 자기인식을 말한다(Judge & Bono, 2001).

핵심자기평가는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라는 점에서 자아존중감, 일반화된 자아효능감, 내재적 통제위치, 신경증과 의미상 관련을 갖고 있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가치에 대한 자기평가라는 점에서 핵심자기평가 개념과 관련된다(이동하, 탁진국, 2008; 이효정, 2002; Newman & Newman, 1975). 일반화된 자아효능감은 다양한 상황에서 부딪치는 과업들을 잘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기평가라는 점에서 핵심자기평가와 관련 있다. 일반화된 자아효능감은 특정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자아효능감과 개념적으로 구분된다(Locke, McClellan, & Knight, 1996). 통제위치도 자신의 능력에 대한 평가라는 점에서 핵심자기평가 요소로 간주된다. 외재적 통제위치의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낮게 평가하여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으며, 내재적 통제위치의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내부적인 통제감을 갖고 있다(지영준, 2006; Glasser, 1985). 신경증(neuroticism)은 성격 5요인 중의 하나로서 개인의 정서적 안정성에 관한 광범위한 특성이며 낮은 자기존중과 관련된다(Rosenberg, 1965). 신경증이 높은 사람은 죄의식, 불안정, 소심함의 경향성이 높으며 의존과 무기력 정서를 갖고 있었다(Costa & McCrae, 1988). 이들은 일상생활 및 직무수행에서 불만족도가 높았다(Clark & Watson, 1991). 신경증

은 부정적 정서 개념과 밀접하였다(Larsen & Ketelaar, 1991). 이처럼 신경증도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핵심자기평가와 관련을 갖고 있다(Judge, Locke, & Durham 1997).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핵심자기평가는 자아 존중감 .81~.95, 일반화된 자아효능감 .73~.98, 내재적 통제위치 .62~.73, 신경증에 -.52~-.74의 적재량을 갖고 있었다(Bono & Judge, 2003; Judge, Bono, & Locke, 2000; Judge, Bono, Locke, & Erez, 2005; Piccolo et al., 2005). 실험 및 현장 연구(Erez & Judge, 2001)에서 이 4개의 변수가 각각 동기와 수행에 대해 가지는 상관보다 핵심자기평가라는 하나의 상위 구성개념을 형성하였을 때 .12의 더 높은 상관을 갖고 있었다. 즉, 상위 차원의 단일 요인으로 평가함으로써 측정에서의 효율성과 예측에서의 효과성을 더 높일 수 있었다(Gardner & Pierce, 2010).

핵심자기평가는 직무만족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Judge, Erez, & Bono, 1998), 후속 연구에서 핵심자기평가는 직무특성지각(perceived job characteristics), 직무복잡성(job complexity), 자아일치목표추구(self-concordant goal pursuit), 목표설정동기(goal setting motivation) 등과 같은 내재적 동기부여 변수를 매개로 하여 직무만족, 조직몰입, 리더십, 혁신행동, 직무성과 등 조직 효과성과 개인차원에서의 행복과 생애만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Erez & Judge, 2001; Judge, Bono, & Locke, 2000; Judge et al., 2005; Judge et al., 2003; Judge, Locke, Durham, & Kluger, 1998; Wanberg & Banas, 2000). 동양문화권인 일본에서도 핵심자기평가는 직무만족, 생애만족, 행복과 유의하게 관련이 있었다

(Piccolo et al., 2005). 국내 연구에서 핵심자기평가는 셀프리더십, 혁신행동, 경력계획 및 경력성공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해룡, 양필석, 2008; 이동하, 탁진국, 2008).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일수록 외부세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핵심자기평가가 조직성과를 예측하는 원리를 Bipp(2010)는 Hackman와 Oldham(1976)의 직무특성이론 관점에서 설명하였다. 그는 핵심자기평가를 직무다양성, 과업정체성, 과업중요성, 자율성, 피드백 등과 같은 직무 그 자체의 특성에 반응하여 내적으로 동기부여 되기 쉬운 개인 성격특성이라고 하였다. 실증연구에서 핵심자기평가는 내적 동기부여와 .43의 유의한 상관을 보여주고 있었다. 핵심자기평가는 직무수행 관련 내적 동기부여의 개인 성격특성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핵심자기평가의 성격발달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찾아볼 수 없다. 직무수행과 관련되어 연구되는 핵심자기평가는 그 동안 경영학분야에서 관심을 갖고 있었으나 경영학의 학문적 특성상 성과변수와의 관계에만 초점을 맞추어 연구한 까닭에 연유한다고 보여진다. 또한 경영학자의 경우 발달심리 관점의 접근이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도 해석된다.

일반적으로 성격의 형성은 발달심리 관점에서 다루어져 왔다. 이에 본 연구는 핵심자기평가의 성격형성 과정을 발달심리 관점에서 살펴본다. 성인기 이전 원가족 부모의 양육태도와 가족에서의 분리와 독립을 의미하는 자아분화(self-differentiation)의 관점에서 핵심자기평가를 살펴본다. 성인 직장인을 대상으로 핵심자기평가의 성격특성이 성인기 이전 원가족

부모의 양육태도와 그로 인한 자아분화 수준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가를 밝히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Bowen(1976)은 부모-자녀관계가 친숙하지 못하고 부모로부터의 개별화가 미약하여 부모 의존적인 자녀는 정서적 단절이 심하고 대인관계에서도 자율성이 부족하여 성숙한 개체로 성장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Hoffman과 Weiss(1987)도 개인이 가족관계에서 정서적인 독립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 부적응 행동이 많이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자아분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그동안 많았다(남상철, 2004; 박수영, 2005; 정해경, 2006; 조성두, 2008; Bowen, 1982 등). 또한 자아의 성장과 발달 척도인 자아분화는 자아에 대한 평가를 의미하는 핵심자기평가와 유의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 직장인 직무수행 관련 핵심자기평가의 성격 발달에 관심이 있는 발달심리학자나 직업능력개발 연구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각된 부모양육태도와 핵심자기평가

양육태도란 부모 또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갖게 되는 일반적인 태도나 행동을 의미한다(이종승, 오성심, 1982). 양육태도는 자녀의 성격이나 행동 뿐 아니라 정서와 인지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조성두, 2008; Fried, 1923). 양육기 자녀의 부모와의 관계가 성인기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생각이 체계적으로 이론화되기 시작한 것은 Freud학파에 의한 생애 초기경험이 강조되면서부터이다. 특히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자녀 발달의 결정적 시기 동안 자녀와 접촉이 가장 많고 자녀

의 일상생활에 깊이 개입하여 자신의 지적, 정서적 특성을 자녀들에게 심어주게 됨으로써 자녀의 성장과 학습 그리고 사회 적응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이효정, 2002). 부모는 자녀에게 있어 최초의 교육자임과 동시에 그들의 생애를 통해서 지속적이고 장기간에 걸쳐 영향을 주는 존재이므로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는가에 따라 자녀의 성격 형성과 행동은 크게 달라진다(노순점, 2005). 양육태도는 부모가 지각하는 것과 자녀가 지각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때는 자녀가 어떻게 받아들여느냐에 따라 자녀의 행동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녀가 지각한 양육태도가 더 중요하다(조성두, 2008; Schaefer, 1965).

양육태도에 대한 개념의 틀은 학자마다 다르다. Schaefer(1965)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적대, 자율-통제의 두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애정은 긍정적으로 이해해 주고 아동 중심적이며 자주 설명을 해주는 훈육방법으로서 체벌 대신 상을 이용하는 태도를 말한다. 적대는 자녀를 싫어하고 비난하며 적개심을 품는 태도로서 자녀가 부모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다고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율은 허용적 차원을 말한다. 통제는 엄격함을 의미한다(이효정, 2002). 이종승과 오성심(1982)은 성취-비성취, 합리-비합리의 2개 차원을 유형화하여 추가함으로서 지금까지 유형화된 부모 양육태도 차원을 거의 모두를 포함시켰다(이효정, 2002). 성취는 자녀가 달성 가능한 수준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격려해 주며, 끈기 있게 목표했던 일을 성취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비성취는 자녀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자녀에게 맡겨진 일에 대한 책임완수에 무관심하고, 새로운 일이나 경험 및

호기심에 대해 비협조적임을 말한다. 합리는 자녀가 갖는 생각이나 행동에 대해 이유를 중시하는 경향을 말한다. 비합리는 부모가 매사에 이유를 불필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부모의 양육태도는 대체로 애정적, 통제적, 성취적, 합리적으로 나타났다(지용근, 2004). 그러나 이혼이나 정서행동장애 아동의 가정에서는 통제, 거부, 비온정적인 부모 양육태도가 높았다(김유진, 2010; 정연옥, 이민규, 2006).

부모양육태도와 자녀 성격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보면, 부모가 애정과 자율의 양육태도를 갖추고 있을 때 자녀는 사교적이고, 창의적이며, 사회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가 적대적이고 통제 중심일 때 자녀는 공격적이 될 가능성이 높았다(조성두, 2008). 대체로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 수용적일 경우 자녀는 정서적, 지적, 사회적 발달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부모가 극단적인 지배, 제한, 처벌을 하면 자녀의 자아개념이 성장하지 못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최우기, 2007).

이와 같이 부모양육태도가 자녀의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자기평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부모양육태도와 핵심자기평가를 구성하는 자아존중감 등 4가지 요소와의 관련성을 살펴본다.

초기 가족 경험은 자녀가 성장하여 사회 속에서 자아존중감을 유지하고 대처방법을 배워나가는 능력개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이효정, 2002; Sullivan, 1951). Minuchin(1974)은 모든 인간의 정체감 및 자기상은 원가족으로부터 받는 인정에 의해 형성된다고 했다. 부모

가 자녀를 가치 있는 존재로 평가하며 그들을 수용,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할 때 자녀는 자신에 대한 존중과 신뢰감을 가진다. 부모가 자녀를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평가할 때 자녀의 자아존중감은 높아졌으며, 열등하다고 평가할 때 자녀의 자아존중감은 낮아졌다(정해경, 2005). 부모 자녀간의 바람직한 관계형성은 자녀의 높은 자아존중감 발달에 도움을 주었으며 이것이 곧 능력 있는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이효정, 2002). 아동이 부모의 행동을 애정적이고, 성취적이며, 합리적이라고 지각할 때 아동의 자아개념은 긍정적이 되었다(이종승, 오성심, 1982; 이효정, 2002). 또한 아동으로 하여금 높은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호기심을 자극하였을 때 긍정적 자아존중감이 형성되었고 올바른 대인관계와 사회성이 형성되었다(노순점, 2005). 반면에, 어머니가 과보호적이고 거부적인 태도를 보이면 자녀가 퇴행적이고 의존적인 사회적 특성을 보여주었다(이원영, 1973). 부모의 거부적, 권위적 태도와 자기존중감은 부적 상관을 갖고 있었다(이효정, 2002; 노순점, 2005).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자아효능감 형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노순점, 2005). 자아효능감은 자기가 실제 과제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는 삶의 경험에 의해서 형성되는데, 부모에 의해 성공 경험을 많이 가진 아동은 자아효능감이 높다(Bandura, 1977). 부모의 양육태도가 비성취보다는 성취, 거부보다는 친애, 타율보다는 자율로 지각하는 아동일수록 자아효능감이 더 높게 나타났다(최우기, 2007). 부모의 양육태도가 수용적, 자율적, 애정적, 성취지향적 일수록 자녀의 자신감, 자기 조절 효능감 및 자아효능감이 높았으며, 과제

를 선택함에 있어 도전적인 선택을 많이 하였다(김민정, 2004).

부모의 양육태도와 신경증도 관련성이 있다. 부모의 거부적인 성격은 자녀의 복종, 공격, 적응곤란, 불안, 가학성, 신경질, 부끄러움, 온순하지 못한 특징을 갖게 하였다(우영희, 1982).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는 신경증과 정적 상관을 보여주었다(이선화, 1998). 부모의 태도가 거부적이거나 과보호적이며, 지나치게 엄격하고 통제를 많이 할수록 자녀는 공격적이 되었고, 불안을 느끼었으며, 적대적이고, 충동적인 특성들을 나타내었다(박귀화, 2001).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부모의 자녀 체벌이나 학대 그리고 방임적 양육태도가 자녀의 신경증적 경향을 일으킨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박지홍, 2002; 이인숙, 1988).

부모의 양육태도와 내재적 통제위치에 대한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적, 자율적으로 지각할수록 자녀의 내재적 통제위치가 높았다(이수옥, 2007). 부모가 수용적, 자율적, 애정적, 성취지향적 양육태도를 갖고 있을수록 자녀는 자신의 능력에 성공을 귀인 시키는 내재적 통제위치의 경향을 보여주었다(김민정, 2004).

이상의 연구를 종합해 볼 때, 성인기 이전 원가족 부모의 바람직한 양육태도는 이후 자녀의 성인기 핵심자기평가 성격발달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된다.

지각된 부모양육태도, 자아분화, 핵심자기평가

성인기 핵심자기평가 성격을 자아발달 척도인 자아분화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자아분화는 Bowen(1976)의 가족체계 이론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 개념이다. 인간은 태어

나서 어머니와의 공생관계에 의한 정서적 융합을 이루게 되는데, 자녀가 어머니와의 융합에서 서서히 벗어나 자기 자신의 정서적 자주성을 향해 나아가는 장기적 과정에 의해 자아분화가 이루어진다(한영숙, 2007). 자아분화란 개인이 그의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얼마나 분리, 독립했는가로 정의된다. 자아분화 수준이 높은 사람은 정서와 사고가 분리되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객관적으로 사물을 보며, 사려가 깊고, 융통성이 있다(이신숙, 2000; 하용현, 2007; 한영숙, 2007). 반면 사고와 정서가 분리되지 않아 부모와 융합의 정도가 높은 사람은 정서에 의해서 더 영향을 받게 됨으로써 이성적 사고가 아닌 감정에 바탕을 둔 반응과 의사결정을 한다. 대인관계 관점에서 자아분화는 가족 및 그 외의 관계에서 자아를 견실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능력 즉,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고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자아분화 수준이 낮을수록 결속된 주변 세력에 의해 사고와 판단이 지배되어 타인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자아분화 수준이 높은 사람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명확하게 사고하고, 신념에 따라 행동하면서 타인의 가치나 신념을 존중하고,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주체적이고 목표지향적인 삶을 산다(한영숙, 2007). 자아분화 수준이 낮을수록 감정적인 세계에 살고, 외부반응에 지나치게 민감하고, 의미 있는 지속적인 관계능력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부부관계 및 가족, 사회적 관계에서 올바르게 기능하지 못한다. 자아분화는 성인의 가정 및 직장생활에서의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남상철, 2004; 이인숙, 1988; Hoffman & Weiss, 1987). 이처럼 자아

분화는 자아의 형성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자아의 형성은 성장 초기 부모 또는 주변의 중요한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남순현, 전영주, 황영훈, 2005).

부모양육태도에서 애정과 자율은 자아분화와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적대와 통제는 부정적 상관이 있었다(조성두, 2008). 통제적 부모일수록 자아분화의 하위요소인 가족퇴행, 정서적 단절, 가족투사가 높았다(남상철, 2004).

한편, 자아분화는 핵심자기평가 성격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자아의 성장과 발달 척도인 자아분화는 '자기평가'의 의미를 갖고 있는 핵심자기평가와 관련성이 높기 때문이다. 자아분화와 핵심자기평가를 구성하는 자아존중감 등 4가지 요소와의 관련성을 살펴본다.

자아분화와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살펴본다. 자아분화 수준이 낮은 사람은 의존적 성향을 갖고 있으며 자기에 대한 평가를 타인에 의존하기 때문에 자신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자아분화 수준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유지해 가면서 타인과 독립적이고 상호존중의 관계를 맺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가치를 높게 인정한다. 실증연구에서도 자아분화는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김갑숙, 전영숙, 이철우, 2009; 남상인, 2003; 이정희, 정경연, 유희정, 2007).

자아분화와 자아효능감의 관계를 살펴본다. 부모와의 적절한 애착 형성과 자녀의 심리적 독립은 자녀의 성취경험에 영향을 미쳐 자아효능감 형성을 도와준다.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과 애착을 지각한 자아분화가 높은 청소년의 경우 자아효능감이 높았다(Kenny, 1994; Ryan, Brown, & Solberg, 1996). 자아분화

는 직업탐색 효능감, 면접 효능감, 관계구축 효능감, 진로탐색 효능감과도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손승희, 2000; Kinnier, Brigman, & Noble, 1990; Ryan, Brown, & Solberg, 1996).

자아분화와 신경증과의 관계를 살펴본다. 신경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타인의 승인이나 애정에 지나치게 의존적이다. 이로 인해 이들은 내면의 열등감과 불안정함을 느끼고 있으며, 자신을 주장하지 못하고, 타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대체로 이러한 성향은 자아분화가 잘 이루어지지 못한 사람의 특성과 유사하다(손승희, 2000). 낮은 자아분화 수준은 우울 및 불안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권미애, 김필숙, 박지현, 김태현, 2005; 김갑숙 등, 2009; 배미예, 2008; Sabatelli & Anderson, 1991). 부모와 정서적으로 분리되지 못해 갈등을 많이 경험하고 있는 대학생은 불안과 우울, 대인관계 갈등, 학업부적응 행동을 보였다(Hoffman, 1987). 자아분화 수준이 높은 사람은 정신건강 수준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다(손승희, 2000; 이혜숙, 1992). 이처럼 자아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핵심자기평가 구성요소인 자아존중감과 자아효능감이 높고, 반대로 신경증은 낮았다.

성인기 이전 원가족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지각은 자아분화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자아분화는 성인기 직장인의 핵심자기평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자아발달의 척도인 자아분화는 부모양육태도와 핵심자기평가에서 매개변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 법

연구문제

본 연구는 성인 직장인을 대상으로 성인기 이전 원가족 부모양육태도에 대한 지각이 성인기 핵심자기평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또한 지각된 부모양육태도가 자아분화를 매개로 하여 성인기 핵심자기평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이에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제시한다.

연구문제 1. 원가족 부모양육태도는 핵심자기평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원가족 부모양육태도는 자아분화를 매개로 하여 핵심자기평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대상

본 연구는 기업체에 종사하는 일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은 서울,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8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0년 4월에서 6월까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서의 배포와 수거는 본 연구자의 강의를 수강하는 직장인 60여명에게 설문취지를 설명한 후 5-10부의 설문서를 배포한 후, 소속 사업장 구성원 대상 자기기입식으로 작성한 후 수거하여 본 연구자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약 20개의 사업장은 연구자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대상자에게 설문취지를 설명한 후 설문서 배포 후 자기기입식으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총 221부의 설문서를 수집하였으나 이 중 응답이 부실한 10부를 제외하고 211부가 통계분석에 사용되었다.

분석에 사용한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성이 127명(60.2%)이며 결혼자는 109명(51.73%)이었다. 기업 규모

는 소기업 43명(20.4%), 중기업 62명(29.4%), 대기업 36명(17.1%), 기타 70명(33.2%)이었다. 직종은 지원사무직이 96명(45.5%), 생산직이 5명(2.4%), 영업판매직이 21명(10%), 부서장급 이상 관리자가 31명(14.7%), 기타 58명(27.5%)이었다. 연령은 19세에서부터 60세까지 분포하였으며 평균 35.3세였다. 학력은 고졸 99명(46.95%), 전문대졸 57명(27%), 대졸 32명(15.2%), 대학원 졸 23명(10.9%)이었다. 재직기간은 평균 10.4년으로 1년부터 33년까지 분포되어 있었다. 전반적으로 인구통계학적 분포에서 편중이 없었으며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칠 특이 사안은 없었다.

측정도구

핵심자기평가

Judge, Erez, Bono와 Thoresen(2003)이 개발하고 이동하와 탁진국(2008)이 번안한 ‘The Core Self-Evaluations Scale(CSES)’척도를 사용하였다. 핵심자기평가를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불편함을 CSES척도의 개발로 짧은 시간 내 간결하게 측정할 수 있게 되었다.

핵심자기평가 점수가 높은 사람은 긍정적이고 자신의 능력에 대해 믿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척도는 1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정적으로 물은 문항은 역산하여 계산하였다. 문항의 예는, ‘대체로 내 자신에 만족하고 있다.’(자아존중감), ‘인생에서 성공하리라는 자신감이 있다.’(일반화된 자아효능감),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의 결과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내재적 통제위치), ‘실패할 때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느낄 때가 가끔 있다.’(신경증) 등이 있다.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

렇다'에 5점을 부여했다.

CSES 척도는 Judge 등(2003)의 연구에서 내 부일치 신뢰계수는 .84, 검사-재검사법에서는 .81의 신뢰도를 보여주었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척도의 수렴 및 판별 타당도가 검증되었다(GFI=.92~.94). 기준관련 타당도에서 직무만족, 직무성과, 생활만족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도 CSES 척도는 셀프리더십과 혁신행동(김해룡, 양필석, 2008), 경력계획 및 경력성공(이동하, 탁진국, 2008)의 연구에서 척도의 타당성이 검증되었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내적일관성 신뢰도 계수는 .84이었다.

자아분화

Bowen의 가족체계이론을 토대로 제석봉(1989)이 개발한 자아분화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는 총 3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중 16문항을 사용하였다. 학생과 청소년에 적합한 내용으로 구성된 척도의 문항에서 본 연구 대상인 성인 직장인이 답하기에 적합한 문항을 선별하였다. 동일한 차원을 물어보는 유사한 문항도 제외하였다.

하위 척도로서 개인의 지적, 정서적 분리능력을 말하는 인지대 정서기능은 3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자기의 신념과 생활원리를 잘 견지하는가를 측정하는 자아통합은 3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부부간의 문제를 특정 자녀에게 투사하는 가족투사는 3문항을 사용하였다. 부모와의 정서적 융합 정도를 측정하는 정서적 단절은 3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부부간 갈등 위기에서 중요 의사결정에 건설적인 방법보다 동질화 추구, 역기능적 의사소통 등 퇴행적 행동으로 나타나는 가족퇴행은 4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가족투사, 정서적 단절, 동질화 추

구는 역산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분화가 잘 된 것을 뜻한다. 문항의 예는, '주위의 말을 참작은 해도 어디까지나 내 소신에 따라 결정한다.' '나는 어릴 때 다른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가 있다.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항상 그렇다'에 5점을 부여하였다. 신뢰도 계수는 인지대 정서기능이 .64, 자아통합이 .62, 가족투사가 .73, 정서단절이 .71, 가족퇴행이 .79였다. 전체 16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74이었다.

지각된 부모양육태도

지각된 부모양육태도는 이종승과 오성심(1982)이 제작한 척도를 수정 사용한 이은선(2008)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애정-적대, 자율-통제, 성취-비성취, 합리-비합리 4개의 차원으로 이루어졌다. 각 문항은 원가족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대하여 각각 응답하도록 하였다. 문항은 원가족 부모의 양육태도가 어떠하였는지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 각각 응답하도록 제시문을 주고, '화가 날 때 식구들에게 화풀이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지기를 바라셨다.'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에 4점을 부여하였다. 부모의 적대, 통제, 비성취, 비합리의 부정적 질문 문항은 역수로 계산하였다. 전체 점수가 높을수록 바람직한 양육태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부모의 애정-적대가 12문항 .84, 자율-통제 12문항 .82, 성취-비성취 12문항 .79, 합리-비합리가 12문항 .79이었다. 지각된 부모 양육태도 전체 48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93이었다.

척도의 타당성

척도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LISREL8판을 이용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론변수인 부모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부모의 애정-적대, 자율-통제, 성취-비성취, 합리-비합리의 4개의 측정변수를 사용하였다. 이론변수인 자아분화는 인지대 정서기능, 자아통합, 가족투사, 정서적 단절, 가족퇴행의 5개 측정변수를 사용하였다. 이론변수인 핵심자기평가는 단일의 측정변수를 사용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한 측정모델의 전반적 부합도는 $\chi^2=90.76(df=32, p=.00)$, $GFI=.90$, $RMR=.10$, $NFI=.97$, $NNFI=.97$ 로서 비교적 적합도가 양호하였다. 따라서 이론변수 간의 변별타당도와 측정변수 간의 수렴타당도가 확인되었다. 개별 측정변수 사용의 적정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상관자승치를 살펴보았다. 대부분의 측정변수 다중상관자승치는 .40에서 .90까지 이론변수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편이었지만, 자아분화 측정변수인 자아통합(.01), 가족투사(.14) 변수는 이론변수에 대한 기여도가 낮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제석봉(1989)의 척도는 그동안 이론 및 경험적 연구에서 타당성이 인정되어온 도구로서 많이 사용되어 왔고, 연구의 전체 타당도가 전반적으로 양호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그대로 사용하였다.

자료분석

통계 분석은 SPSS 9판과 LISREL8을 사용하였다. 먼저, 성별 등 인구통계학적 변수가 지각된 부모양육태도, 자아분화, 핵심자기평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둘째, 지각된 부모양육태도, 자아분화, 핵심자

기평가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셋째, 연구과제 1과 2를 분석하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세 단계의 회귀분석을 통한 매개효과 검증 방법을 사용하였다. 넷째, 매개효과를 추가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공변량구조모형 분석과 Sobel(1982)이 제시한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공변량구조모형 분석에서는 기준모형인 부분매개모형과 대안모형 1, 대안모형 2(완전매개모형)를 설정하여 간명도 대비 부합도를 비교하였다. 다섯째, 추가분석으로 다중회귀 분석을 통하여 부모양육태도의 하위 변수가 자아분화와 핵심자기평가에 미치는 상대적 기여도를 살펴보았다. 또한 자아분화 하위 변수들이 핵심자기평가에 미치는 상대적 기여도를 살펴보았다.

결 과

먼저,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주요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성별, 결혼유무, 기업 규모, 직종에 따라 지각된 부모양육태도, 자아분화, 핵심자기평가에서 집단 간 유의한 평균 차이가 없었다. 재직기간은 자아분화와 .14, 핵심자기평가와 .26의 유의하였지만 낮은 상관이 있었다.

표 1은 변수의 평균, 표준편차와 상관계수를 보여준다. 핵심자기평가와 자아분화의 평균은 중앙값 3.0보다 높았다. 양육태도의 평균은 중앙값 2.5보다 높았다.

변수 간의 상관계수를 보면, 양육태도와 핵심자기평가는 .35($p<.001$)의 상관을 갖고 있었다. 양육태도와 자아분화의 상관($r=.56, p<.001$)과 자아분화와 핵심자기평가의 상관($r=.45, p<.001$)은 모두 유의하였다.

표 1. 부모양육태도, 자아분화, 핵심자기평가 상관계수(n=211)

	M	SD	부모양육태도				총		자아분화			총		핵심 자기 평가	
			애정-적대	자율-통제	성취-비성취	합리-비합리	양육 태도	인지 대정서	자아 통합	가족 투사	정서 단절	가족 퇴행	자아 분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9	.48													
2	2.9	.43	***												
3	3.0	.41	***	***											
4	2.9	.39	***	***	***										
5	2.9	.36	***	***	***	***									
6	3.3	.62		***	*	*	***								
7	3.5	.72	.03	.04	.11	-.02	.05	.08							
8	3.7	.82	***	***	*	*	***	***							
9	3.4	.92	***	***	***	***	***			***					
10	3.4	.78	***	***	***	***	***	***			***				
11	3.5	.45	***	***	***	***	***	***	***	***	***	***			
12	3.5	.50	***	***	***	***	***	***	***	***	*	***	***		

* $p < .05$, ** $p < .01$, *** $p < .001$

연구과제 1과 2를 분석하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 방법을 사용하였다. 세 단계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하여 완전매개효과와 부분매개효과를 검증할 수 있다. 표 2에서와 같이 1 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부모양육태도가 매개변수인 자아분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2 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부모양육태도가 종속변수인 핵심

자기평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3 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부모양육태도와 매개변수인 자아분화를 동시에 투입하여 종속변수인 핵심자기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만일 분석결과 1 단계와 2 단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3 단계에서 핵심자기평가에 대한 부모양육태도의 증가된 영향력(ΔR^2)이 2 단계의 R^2 값보다 감소하면서 더 이상 유의하

표 2. 자아분화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회계분석(n=211)

	단	계	β	R^2	ΔR^2	F
1단계	독립변수	매개변수				
	부모양육태도	→ 자아분화	.7***	.324		100.3***
2단계	독립변수	종속변수				
	부모양육태도	→ 핵심자기평가	.49***	.124		30.7***
3단계	독립, 매개변수	종속변수				
	자아분화	→ 핵심자기평가	.408***	.203		53.2***
	부모양육태도	→ 핵심자기평가	.209*	.211	.015*	

* $p < .05$, ** $p < .01$, *** $p < .001$

지 않은 경우 완전매개효과를 나타낸다고 말한다. 만일 3 단계에서 핵심자기평가에 대한 부모양육태도의 증가된 영향력(ΔR^2)이 2 단계 R^2 값보다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유의한 경우에는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낸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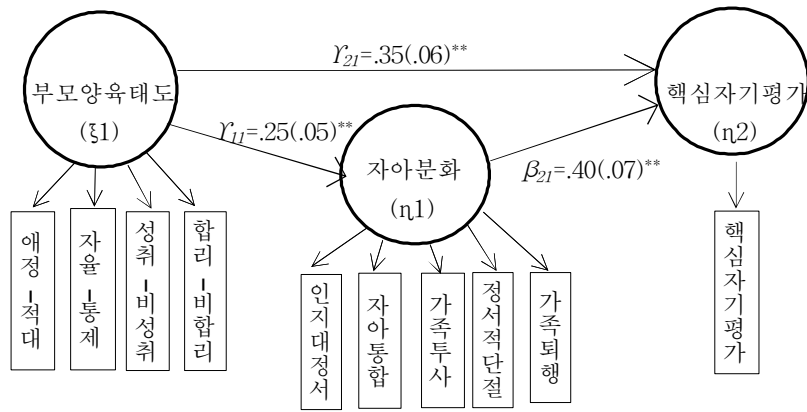
세 단계 위계적 회귀분석을 수행하기 전에 독립변수인 부모양육태도와 매개변수인 자아분화의 다중공선성을 진단하기 위하여 분산팽창계수(VIF)와 허용치(tolerance)를 살펴보았다. 두 변수 모두 분산팽창계수는 1.4로서 10이하였으며, 허용치가 .6으로서 .1보다 크기 때문에 다중공선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1단계와 2단계에서 부모양육태도는 자아분화($R^2=.324, p<.001$)와 핵심자기평가($R^2=.124, p<.001$)에 각각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3단계에서 핵심자기평가에 대한 부모양육태도의 증가된 영향력($\Delta R^2=.015, p<.05$)이 2단계 $R^2=.124(p<.001)$ 보다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자아분화는 부모양육태도와 핵심자기평가 간에 부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문제 1. 부모양육태도는 핵심자기평가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이 통계적으로 입증되었다. 그리고 연구문제 2. 부모양육태도는 자아분화를 매개로 하여 핵심자기평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매개변수 역할도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입증되었다.

다음은 공변량구조모형 분석을 통하여 부모양육태도가 핵심자기평가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자아분화를 매개로 하여 미치는 간접효과를 분석하였다. 그림 1은 부분매개모형으로서 본 연구의 기준모형으로 삼았다. 기준모형의 전체 적합도는 $\chi^2=26.24(df=28, p=.56)$, $RMR=.04$, $GFI=.99$, $AGFI=.98$, $NFI=.98$, $NNFI=1.0$ 으로 기준모형은 실제 분석 자료와 잘 부합하였다. 간명도 대비 설명력을 나타내는 $PGFI$ (parsimony goodness of fit index)(Williams & Hazer, 1986)의 값은 .50이었다. 경로를 보면, 양육태도는 핵심자기평가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gamma_{21}=.35, p<.01$). 즉 원가족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성인기 직장인의 핵심자기평가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가족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아분화를 매개로 핵심자기평가에 간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gamma_{11} =$



()는 표준오차, * $p < .05$, ** $p < .01$

그림 1. 기준모형(부분매개모형)의 경로와 유의수준(n=211)

.25, $p < .05$; $\beta_{21} = .40$, $p < .05$).

다음은 그림 1의 기준모형과 비교하기 위하여 2개의 대안모형을 제시하였다(대안모형 1은 그림 1에서 $\gamma_{11}=0$, $\beta_{21}=0$ 로 고정 한 것이며, 대안모형 2는 그림 1에서 $\gamma_{21}=0$ 로 고정 한 것임). 첫째, 대안모형 1은 자아분화 매개 효과가 없다고 가정하고 양육태도가 핵심자기평가에 미치는 직접효과만을 검증한 모형이다($df=30$, $\chi^2=461.8$). 기준모형과 비교하여 대안모형 1은 자유도 2증가에 χ^2 값이 435.6만큼 증가하여 모형의 간명함에 비해 설명력의 큰 손실을 가져왔다. 간명도 대비 설명력을 나타내는 PGFI의 값은 .43였다. 따라서 대안모형 1은 적합한 모형이라 볼 수 없다. 둘째, 대안모형 2는 완전매개모형으로 부모양육태도가 핵심자기평가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없다고 가정하고 자아분화를 매개로 하여 핵심자기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df=29$, $\chi^2=26.2$). 이 모형은 간명함을 추구함에 비해 모형의 설명력의 감소를 가져오지 않았다. 그러나 χ^2 값은 다변량정규분포 가정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

에서(이순목, 1990, 151-171) 간명도 대비 부합도의 지표인 PGFI 값을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PGFI 값을 보면, 대안모형 2가 .47로서 그림 1의 부분매개모형인 .50보다 낮았다. 따라서 χ^2 값과 PGFI 값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림 1의 부분매개 모형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앞의 표 2 Baron과 Kenny(1986)의 3단계 회귀분석결과와 일치한다. 그리고 그림 1에서 얻은 데이터를 이용하여 Sobel(1982)이 제시한 매개효과분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Z_{ab} 값은 3.76($p < .00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a = .25$, $b = .40$, $S_a = .05$, $S_b = .07$).

다음, 핵심자기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양육태도 하위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회귀 분석(stepwise)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표 3과 같이 부모의 성취-비성취 변수가 핵심자기평가의 11%를 설명하였다. 나머지 변수는 추가로 유의한 설명력의 증가를 가져오지 않았다. 부모가 성취지향적일수록

성인기 개인의 핵심자기평가가 높았다. 자기 자신의 가치, 역량, 효능감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근본적인 자기평가를 의미하는 핵심자기평가는 자녀가 달성 가능한 수준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격려해 주며, 끈기 있게 목표했던 일을 성취하도록 하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부모양육태도의 하위변수들이 자아분화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표 4와 같이 부모의 애정-적대, 성취-비성취 변수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정-적대가 자아분화의 32%를 설명하였다. 성취-비성취가 추가적으로 1.6% 유의한 설

명력의 증가를 가져왔다. 나머지 변수는 유의한 설명력 증가를 가져오지 않았다. 부모의 애정이 높고, 적대적이 아닐수록 자녀의 자아분화 수준은 높다고 볼 수 있다.

자아분화의 하위변수들이 핵심자기평가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표 5와 같이 인지대정서가 17.9% 그리고 자아통합이 5.4%, 가족퇴행이 4.6%의 설명력의 증가를 가져왔다. 나머지 변수는 추가로 유의한 설명력의 증가를 가져오지 않았다. 인지가 정서로부터 분리되어 있을수록 자신의 가치, 역량, 효능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표 3. 부모양육태도가 핵심자기평가에 미치는 영향(n=211)

종속변인	독립변인	β	R^2	ΔR^2	F
핵심자기평가	성취-비성취	.41***	.11	.11	26.9***

* $p < .05$, ** $p < .01$, *** $p < .001$

표 4. 부모양육태도가 자아분화에 미치는 영향(n=211)

종속변인	독립변인	β	R^2	ΔR^2	F
자아분화	애정-적대	.43***	.329	.329	54.7***
	성취-비성취	.18*	.345	.016*	

* $p < .05$, ** $p < .01$, *** $p < .001$

표 5. 자아분화가 핵심자기평가에 미치는 영향(n=211)

종속변인	독립변인	β	R^2	ΔR^2	F
핵심자기평가	인지대정서	.27***	.179	.179	26.3***
	자아통합	.17***	.233	.054***	
	가족퇴행	.14***	.279	.046***	

* $p < .05$, ** $p < .01$, *** $p < .001$

논 의

본 연구는 원가족 부모의 양육태도가 성인기 직장인의 핵심자기평가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원가족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아분화를 매개로 하여 핵심자기평가에 간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그 의의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기 이전 원가족 부모의 양육태도는 성인기 직장인의 핵심자기평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성인기 이전 원가족 부모의 양육태도가 성인기 자녀의 핵심자기평가 성격발달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추가 분석에서 부모양육태도 하위변수들이 핵심자기평가에 미치는 상대적 기여도를 분석하였을 때, 성취-비성취 변수만이 핵심자기평가에 11%의 유의한 설명력을 갖고 있었다. 부모의 성취지향적 양육태도가 내적 동기부여인 핵심자기평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성취동기는 후천적으로 획득되는 것으로 내재적 동기부여를 통하여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McClelland(1961)의 성취동기이론과 동일한 맥락을 갖고 있다. 다만 핵심자기평가가 성격특성에 초점을 둔 반면, 성취이론은 동기부여에 초점을 두고 있다.

둘째, 자아분화는 성인기 이전 원가족 부모의 양육태도와 핵심자기평가 간에 부분매개변수 역할을 하였다. 즉 부모양육태도는 핵심자기평가에 직접적으로 유효한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자아분화를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핵심자기평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자아분화의 부분매개변수 역할에 대해서는 Baron과 Kenny(1986)의 3단계 회귀분석과 공변량구

조모형의 대안모형 비교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Baron과 Kenny(1986) 모델의 3단계에서 부모양육태도가 핵심자기평가에 미치는 설명력의 증가분은 1.5%로서 유의하였지만 낮았다. 또한 공변량구조모형의 대안모형 2(완전매개모형)은 기준모형인 부분매개모형과 비교하여 자유도가 1 증가함에도 설명력의 감소를 가져오지 않았다($df=29$, $\chi^2=26.2$). 간명도와 함께 χ^2 값만을 보았을 때는 완전매개모형도 나름대로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간명도 대비 부합도 지표인 *PGFI* 값은 부분매개모형이 .50, 완전매개모형이 .47로서 부분매개모형이 더 적합하였다. 따라서 Baron과 Kenny의 모델과 χ^2 및 *PGFI* 값을 함께 고려할 때 부분매개모형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자아분화는 부모양육태도와 핵심자기평가에 매개변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표 2 Baron과 Kenny(1986) 분석결과 부모양육태도는 자아분화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는데($R^2=.32$), 이러한 결과는 성장 초기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아분화가 영향을 받는다는 남순현, 전영주와 황영훈(2005), 조성두(2008)와 남상철(2004)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추가 분석에서 부모양육태도의 하위변수 중 애정-적대가 32%, 성취-비성취가 1.6%의 설명력의 증가를 갖고 있었다. 애착이론에 의하면 자녀는 초기 어머니와의 충분한 애착관계가 보장 될 때 초기의 공생적 관계를 벗어나 분리개별화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박수영(2005)의 연구에서와 같이 부모양육태도에서 애정은 다른 양육태도 하위변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설명력의 기여도가 높았다.

자아분화는 핵심자기평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데($R^2=.20$),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앞서 자아분화가 자아효능감, 자아존중감, 내적 통제위치, 신경증과 유의한 관계가 있다는 이전의 연구결과들과 일치한다(김갑숙, 전영숙, 이철우, 2009; 이정희, 정경연, 유희정, 2007; 손승희, 2000; Ryan, Brown, & Solberg, 1996). 추가로 자아분화의 하위변수들이 핵심자기평가에 미치는 영향력의 상대적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인지대정서가 17.9%, 자아통합이 5.4%, 가족퇴행이 4.6%의 설명력의 증가를 보여주었다. 인지대정서란 지적 기능이 정서적 기능에서 얼마나 분리되어 있는가를 말하는 것으로 (Bowen, 1978), 정서와 인지가 균형을 잘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의 가치와 능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작업에서도 내재적으로 동기부여 되는 핵심자기평가 성격특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인지와 정서가 분리되지 못한 사람은 주관적 정서과정과 객관적 인지과정을 구별하지 못하고 본능적인 충동에 따라 반응하며 융통성이 부족하고 의존적인 특징을 보여준다(박수영, 2005), 이러한 사람의 경우 자신의 가치와 역량에 대해 낮게 평가하며 내재적으로 동기부여 되기 쉽지 않은 성격특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성인기 이전 원가족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의 발달을 의미하는 자아분화 수준이 성인기 직장인의 자기 가치와 역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직무수행에서의 내적 동기부여와 관련 있는 핵심자기평가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연구를 통하여 밝혀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직무수행 관련 내재적 동기부여와 핵심자기평가 성격발달에 관심을 갖고 있는 발달심리학자 및 직업능력개발연구자에게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입사 선발 시 지원자의 부모와의 관계와 양육환경을 다루어 참고

한다면 선발의 타당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와 추후 연구과제를 갖고 있다. 첫째, 핵심자기평가 개념은 자아존중감, 일반화된 자아효능감, 내재적 통제위치, 신경증의 상위 단일 고차요인으로서 4개의 개념을 포괄하면서도 단순화 시켜 제한된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Gardner & Pierce, 2010). 그러나 위 4개의 개념은 각각 다른 상황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상의 유용성이 크다는 점에서 핵심자기평가 개념이 위 4개의 개념을 대체할 수는 없다. 연구와 활용의 관점에서 융통성 있게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자아분화 관련 하위변수인 자아통합 변수의 이론변수에 대한 기여도가 낮았다. 또한 내적일관성에 의한 신뢰도는 .62로서 낮았다. 핵심자기평가와는 $.26(p < .001)$ 의 상관이 있었으나 부모양육태도 하위변수와는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 김소영(2009), 제석봉(1989)과 조성두(2008)의 연구에서도 자아통합 변수는 타 변수와 상대적으로 낮은 상관을 보여주거나 관계의 유의성이 없었다. 최인재(2004)의 연구에 따르면 서구 사회는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하고 행동의 자율성을 획득하는 것이 자기 정체감을 수립하는 개인의 중요한 발달과업이라면, 한국의 자녀교육은 다른 사람과의 상호 협동적인 관계나 성숙한 인격을 형성해 나아가 위해 독립과 자율보다는 관계의 증진과 조화를 강조하였다는 지적에서와 같이 동서양의 문화적 차이에서 그 원인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본 연구는 횡단적 연구로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동시에 측정한 결과를 분석에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동일방법 사용문제(common

method variance)가 있을 수 있다. 넷째, 성인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성인기 이전 원가족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지각이 얼마나 정확한가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양육태도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 할 때 부모의 양육태도를 자녀가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 자녀의 행동이 실제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녀가 지각한 양육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하였다(Schaefer, 1965; 조성두, 2008). 이러한 관점에서 원가족 부모양육태도에 대한 지각에 의한 측정 자료의 사용이 연구의 의미를 떨어트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정확한 인과관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종단적 연구방법의 적용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권미애, 김필숙, 박지현, 김태현 (2005). 미혼 성인자녀가 지각하는 자아분화와 부모-자녀간 정서체계 역동성이 특성불안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3(11), 31-48.
- 김갑숙, 전영숙, 이철우 (2009). 청소년의 부모 애착, 자아분화,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7(1), 209-224.
- 김민정 (2002). 청소년의 친구관계와 자아존중감.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소영 (2009). 남자 중학생의 자아분화와 자기주도학습능력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유진 (2010). 정서행동장애 아동의 사회성과 부모 양육태도의 관계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해룡, 양필석 (2008). 핵심자기평가와 혁신 행동과의 관계에서 셀프리더십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 *대한경영학회지*, 21(5), 1831-1857.
- 남상인 (2003). 청소년의 자아분화와 자아존중감의 관계. *순천향대학교 인문과학논총*, 12, 77-91.
- 남상철 (2004). 양육태도와 자아분화 수준이 청소년의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 *신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순현, 전영주, 황영훈 공역 (2005). *보웬가족치료이론*. 서울: 학지사.
- 노순점 (2005).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의 차이.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귀화 (2001).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5요인 성격구조 간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수영 (2005). 아동의 부자유친성정과 자아분화 및 대인관계성향간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지홍 (2002). 비행청소년의 심리적 성장환경과 성격특성에 관한 분석.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배미예 (2008). 청소년의 자아분화가 자기통제력, 대인관계 문제 및 우울/불안에 미치는 영향.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승희 (2000). 가족환경변인 및 자아분화와 대학생의 진로탐색 자기효능감과와의 관계.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필석 (2008). 핵심자기평가가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 셀프리더십과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울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우영희 (1982).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문제. *중*

- 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동하, 탁진국 (2008). 주도성과 핵심자기평가가 경력성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력계획을 매개변인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산업및조직, 21(1), 83-103.
- 이선화 (1998).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정적인 부모의 양육태도와 NEO-PI-R에 의한 청소년 성격특성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수옥 (2007).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 내외통제성 및 대인불안의 관계.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순목 (1990). 공변량구조분석. 서울: 성원사.
- 이원영 (1983). 아동의 사회적 특성과 어머니의 양육방법 및 태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선 (2008).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진로사결정유형가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인숙 (1988). 부모의 양육태도와 정신증적, 신경증적 경향과의 관계 연구: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성심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희, 정경연, 유희정 (2007). 세대간 가족관계와 자아분화 및 자아존중감이 대학생활 적용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4(5), 407-429.
- 이종승, 오성심 (1982).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정의적 특성간의 관계. 한국행동과학연구소, 11(1), 1-15.
- 이혜숙 (1992). 청소년의 자아분화와 정신건강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효정 (2002).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연옥, 이민규 (2006). 이혼가정 자녀의 스트레스 완충의 조절효과로써 부모양육태도와 유기공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4), 689-708.
- 정해경 (2006). 교회 내 청소년의 가족체계 유형에 따른 자아분화 정도와 자아존중감의 상관성 연구. 총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제석봉 (1989). 자아분화와 역기능적 행동과의 관계 - Bowen의 가족체계이론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성두 (2008). 원가족 역동이 성인기 조직 내 갈등관리양식에 미치는 영향: 자아분화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지영준 (2006). 현실요법을 적용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내적 통제성과 발표불안에 미치는 효과.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지용근 (2004). 성역할 정체감과 부모의 양육태도가 초등학생의 진로흥미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1), 71-88.
- 최우기 (2007).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에 따른 아동의 자아효능감, 학습동기 및 학업성취도.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인재 (2004). 부자유친성정이 자녀의 심리, 사회적 적응관련 정서에 미치는 영향: 자아분화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영숙 (2007). 부부의 자아분화 수준에 따른 부부갈등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6(2), 259-272.
- Allport, G. W. (1961). *Pattern and Growth in Personality*.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ipp, T. (2010). What do people want from their jobs? The big five, core self-evaluations and work motiv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Selection and Assessment*, 18(1), 28-39.
- Bono, J. E., & Judge, T. A. (2003). Self-concordance at work: toward understanding the motivational effects of transformational leader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26, 554-571.
- Bowen, M. (1982).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ew York: Jackson Aronson.
- Bowen, M. (1976). *Theory in the Practice of Psychotherapy*. In P. J. Guerin(Ed), *Family Therapy*. New York: Gardner Press.
- Cattell, R. B. (1965). *The Scientific Analysis of Personality*. Baltimore, MD: Penguin.
- Clark, L. A., & Watson, D. (1991). General affective dispositions in physical and psychological health. In C. R. Snyder & D. R. Forsyth(Eds.), *Handbook of Clinical and Social Psychology*(pp. 221-245). New York: Pergamon Press.
- Costa, P. T., Jr., & McCrae, R. R. (1988). Personality in adulthood: A six-year longitudinal study of self-reports and spouse ratings on the NEO Personality Invent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853-863.
- Dormann, C., Fay, D., Zapf, D., & Frese, M. (2006). A state-trait analysis of job satisfaction: On the effect of core self-evaluations.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55(1). 27-51.
- Erez A., & Judge, T. A. (2001). Relationship of core self-evaluations to goal setting, motivation, and performanc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6, 1270-1279.
- Freud, S. (1923). *The Ego and Id*. In, D. Scharft, *Object Reactions Theory and Practice*: Jasson & Aronson Inc.
- Gardner, D. G., & Pierce, J. L. (2010). The core self-evaluation scale: Further construct validation evidence.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70(2), 291-304.
- Glasser (1985). *Control Theory, A New Explanation of How We control Our Life*. New York: Harper & Row.
- Hackman J. R., & Oldham, G. R. (1976). Motivation through the design of work: Test of a theory. *Organizational Behavior & Human Performance*, 16, 250-279.
- Hoffman, J. A. & Weiss, B. (1987). Family dynamics and presenting problems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ling Psychology*, Vol.34 No.2, pp. 157-163.
- Judge, T. A., & Bono, J. E. (2001). Relationship of core self-evaluations traits - self-esteem, generalized self-efficacy, locus of control, and emotional ability - with job satisfaction and job performance: A meta-analysi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6(1), 80-92.
- Judge, T. A., Bono, J. E., & Locke, E. A. (2000). Personality and job satisfaction: The mediating role of job characteristics. *Journal of Applied*

- Psychology*, 85(2), 237-249.
- Judge, T. A., Bono, J. E., Locke, E. A., & Erez (2005). Core self-evaluations and job and life satisfaction: The role of self-concordance and goal attainment.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0(2), 257-268.
- Judge, T. A., Erez, A., & Bono, J. E. (1998). The power of being positive: The relation between positive self-concept and job performance. *Human Performance*, 11(2&3), 167-187.
- Judge, T. A., Locke, E. A., & Durham, C. C. (1997). The dispositional causes of job satisfaction: A core evaluations approach.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19, 151-188.
- Judge, T. A., Locke, E. A., Durham, C. C., & Kluger, A. N. (1998). Dispositional effects on job and life satisfaction: The role of core evaluation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3(1), 17-34.
- Judge, T., Erez, A., Bono, J. E., & Thoresen, C. J. (2002). Are measures of self-esteem, neuroticism, locus of control, and generalized self-efficacy indicators of a common core constru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 693-710.
- Judge, T., Erez, A., Bono, J. E., & Thoresen, C. J. (2003). The core self-evaluations scale: development of a measure. *Personnel Psychology*, 56(2), 303-331.
- Kenny, M. E. (1994). Quality and correlates of parental attachment among late adolescent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2, 399-403.
- Kinnier, R. T., Brigman, S. L., & Noble, F. C. (1990). Career indecision and family enmeshment.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68, 309-312.
- Larsen, R. J., & Ketelaar, T. (1991). Personality and susceptibility to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al st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132-140.
- Locke, E. A., McClelland, K., & Knight, D. (1996). Self-esteem and work. *International Review of Industrial Organizational Psychology*, 11, 1-32.
- McClelland, D. C. (1961). *The Achieving Society*. Princeton, N. J.: Van Nostrand.
- Minuchin, S. (1974). *Family and Family Therapy*, Harvard Univ. Press.
- Newman, B. M., & Newman, P. R. (1975). *Development Through Life*, The Dorsey Press.
- Piccolo, R. F., Judge, T. A., Takahashi, K., Watanabe, N., & Locke, E. A. (2005). Core self-evaluations in Japan: Relative effects on job satisfaction, life satisfaction, and happiness.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26, 965-984.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yan, N. E., Brown, S. D., & Solberg, V. S. (1996). Family dysfunction, parental attachment, and career search self-efficacy among community colleagu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3, 84-89.
- Sabatelli, R. M., & Anderson, S. A. (1991). Family system dynamics, peer relationships, and adolescents psychological adjustment. *Family Relations*, 40, 363-369.
- Schaefer, E. S. (1965). Children's reports of parental behavior: An inventory. *Child*

- Development*, 36, 413-424.
- Skowron, E. A., & Schmitt, T. A. (2003). Assessing interpersonal fusion: Reliability and validity of a new DSI fusion with others subscale.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29(2), 209-222.
- Sobel, M. E. (1982). *Asymptotic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s Models*. In S. Leinhardt(Ed.), *Sociological Methodology* 1982(290-312). San Francisco: Jossey-Bass.
- Sullivan, H. S. (1951). *The Structure of Personality*. New York: Harper & Publishers.
- Symonds, P. M. (1949). *The Dynamics of Parent-child Relationships*. N. Y. Bureau of Publication,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 Wanberg, C. R., & Banas, J. T. (2000). Predictors and outcomes of openness to change in a reorganizing workplac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5, 132-142.
- Williams, L. J., & Hazer, J. T. (1986).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satisfaction and commitment in turnover models: A reanalysis using latent variable structural equation method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1(2), 210-231.
- 1차원고접수 : 2010. 12. 29.
수정원고접수 : 2011. 3. 2.
최종게재결정 : 2011. 3. 3.

The Influence of Perceived Parenting Attitudes and Self-differentiations on the Core Self-evaluations in the Employees

Kyung Hwan Park

The Cyber University of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Perceived Parenting Attitudes and Self-differentiation on the Core self-evaluations. The participants of the present study were 211 employee. 3-step regressions of Baron & Kenny(1986) and Covariance Structure Models by LISREL were employed to test the hypothesis of this study. The result of this empirical study exhibits that Parenting Attitudes have positive effects on the Core Self-evaluations. And the Self-differentiation also serves as a mediator between Parenting Attitude and Core Self-evaluation. In 3-step regressions, Parenting Attitudes had positive effects on the Self-differentiation($R^2=.324, p<.001$) and Core Self-evaluations($R^2=.124, p<.001$). And in the third step, added influence of Parenting Attitudes on Core Self-evaluations($\Delta R^2=.015, p<.05$) was less than that of the second step($R^2=.124, p<.001$), but still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It was found that Perceived Parenting Attitudes during children's preadult years had effects on the Core Self-evaluation, which also was mediated by the Self-differentiation.

Keywords : Perceived Parenting Attitude, Self-differentiation, Core Self-evaluations